

국보 이순신 서간첩 연구

조 상 현*

- | | |
|---------------------------|--------------------|
| I. 머리말 | IV. 임사본과 국보 서간첩 비교 |
| II. 국보 이순신 서간첩 현황 | 1. 다양한 임사본의 존재 |
| 1. 국보 서간첩 개관 | 2. 국보 서간첩의 변형 |
| 2. 최초 서간첩의 형태 | V. 맺음말 |
| III. 1928년 촬영본과 국보 서간첩 비교 | |
| 1. 두 서간첩의 차이 | |
| 2. 『이충무공전서』 속집의 간행 | |

국문초록

1830년대 초, 이능권이 영암 연주 현씨 집안으로부터 얻은 이순신 친필 편지는 그의 후손 이규대에 의해 덕수 이씨 종가 사당에 봉납되었다. 이때 편지는 책자의 형태로 장첩되고, 이규대의 발문이 가장 뒤에 붙은 형태였다. 1928년에 조선사편수회가 촬영한 서간첩 유리 필름이 남아 있는데, 이순신과 장남 이희가 현씨 집안에 보낸 편지 7통과 이규대의 발문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편지의 배치 순서는 시대 순을 따르고 있었다. 1930년대 초, 『위인유적』과 『이충무공전서』 속집 등이 간행되면서 현씨와 전혀 무관한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앞자리에 위치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sahakdo@jnu.ac.kr

하기 시작한다. 현재 국보 서간첩 가장 앞부분에도 역시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30년대에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서간첩에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국보 서간첩은 1928년 필름이나 1960년대 간행된 이은상의 영인본 등과 비교해서 편지 순서가 뒤섞여 있다. 이는 누군가 서간첩을 고의로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은상의 영인본 편지 배치가 서간첩 원본과 다른 것은 단순히 편지를 수신인 순서로 정렬한 까닭일 뿐, 수상한 지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1967년 벌어진 국보 76호 도난 사건 때 절도범이 서간첩 일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1928년의 순서와 어긋난 상태로 장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현재의 국보 이순신 서간첩은 최초 형태인 ‘이순신-현씨 집안’과의 편지 모음이라는 성격에서 어긋나 있으며, 편지 순서 역시 뒤섞여 있는 상태이기에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 주제어

이순신 서간첩, 국보 76호, 『이충무공전서』, 『이충무공전서』 속집, 이순신, 연주 현씨, 이규대

I. 머리말

충무공 이순신이 남긴 기록물 가운데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가 있다.¹⁾ 문화재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이 작성한 난중일기와 함께 그의 편지 및 장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난중일기는 임진왜란과 이순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많은 연구논문과 다양한 번역본이 나올 만큼 유명하다. 반면, 서간첩과 임진장초는 난중일기에 ‘附’된 것이라 상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에서 한쪽으로 밀려나 있다.

대중의 관심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난중일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주요 웹사이트의 국보 제76호 정보도 온전히 난중일기 내용으로만 채워지기 일쑤이다. 그나마 임진장초는 임진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난중일기와 함께 다뤄지고 있지만, 이순신이 영암 延州 玄氏 집안에 사적으로 건넨 편지를 모아 둔 서간첩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물이다.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의 소개를 보아도 난중일기에 대한 설명으로만 채워져 있을 뿐 서간첩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얻을 수 없다.²⁾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 온라인 백과사전류 역시 마찬가지로 서간첩에 대해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³⁾

이렇듯 서간첩에 관한 관심이 미약하다 보니 관련 연구 역시 그리 많지 않다. 온전히 서간첩만 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문화재청의 보존처리

1) 2021년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21.11.09. 일부개정)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2021.11.16. 일부개정)의 개정으로 인해 문화재 지정번호는 삭제되었다. 다만 이 글에서는 난중일기와 서간첩, 임진장초 3개의 유물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예전 지정번호였던 ‘국보 제76호’를 임의로 사용하려 한다.

2)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2022년 5월 10일 기준) : 서간첩 관련 설명 없음

3) 주요 백과사전의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2022년 5월 10일 기준)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서간첩』은 간찰(簡札)을 첩장한 것이다.”
- 두산백과 : “충무공의 서간첩이다.”
- 다음백과 : 서간첩 관련 설명 없음

보고서 하나에 불과하고,⁴⁾ 몇 개 되지 않은 논문은 서간첩에 등장하는 ‘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문구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보인다.⁵⁾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호남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혹은 호남지역의 ‘약무호남 시무국가’ 해석 방법에 관한 연구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⁶⁾

서간첩에 대한 부족한 정보와 저조한 관심은 편지의 이순신 친필 여부 논란과 국보 지정 과정에 대한 의심, 편지 내용에 대한 가필 의혹 등 서간첩에 대한 다양한 의심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⁷⁾

이 글을 통해 국보 이순신 서간첩(이후 국보 서간첩)의 문화재 지정 과정과 그 구성을 살피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바로 잡아갈 것이다. 이 순신의 편지가 서간첩이 되는 과정과 이 서간첩의 최초 형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려 한다. 한편 1928년 촬영된 서간첩과 현재 국보 서간첩에 서로 상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 또한 밝혀 보겠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이 이순신과 영암 현씨 집안의 편지로 구성된 서간첩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5.

5) ‘약무호남 시무국가’는 1593년 7월 16일 이순신이 현지평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문구이다.

6)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문구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노기욱, 「전라남도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 방안 : 국보 76호 이순신 서간첩을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26,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6; 임원빈,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통해 본 이순신의 수군 전략」, 『이순신연구논총』2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7; 조신희, 「약무호남시무국가 계책의 의미와 미래지향적 과제」, 『이순신연구논총』2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7.

7) 『노컷뉴스』 「어느게 이순신 친필? “서간첩-전서 차이 확인”」, 2019년 5월 6일; 『연합뉴스』 「“충무공 편지 맞나요” 전남도의회 역사연구회, 검증 요청 관심」, 2019년 5월 7일; 『서울신문』 「이순신이 쓴 ‘약무호남 시무국가’ 편지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2020년 2월 12일; 『남도일보』 「국보 제76호 서간첩 충무공 친필’ 진실여부」, 2020년 2월 13일. 등

국보 서간첩에 실린 편지는 아니지만, 이순신 관련 편지의 진위 논란이 하나 더 있었다. 『이충무공전서』에 실린 ‘어느 숙부에게 보낸 편지[上某叔書]’가 실체는 이순신 사후 30여 년이 지난 후의 사실을 담고 있어 이순신 편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경향신문』 「<이충무공전서>속 오류 최초 확인」, 2019년 9월 10일).

II. 국보 이순신 서간첩 현황

1. 국보 서간첩 개관

난중일기를 비롯하여 이순신과 관련된 각종 유물이 우리나라 문화재로 처음 지정된 것은 1959년 1월이다. 당시 지정번호는 국보 제465호였으며, 문화재 명칭은 ‘아산이충무공난중일기및유물’이었다. 이때 함께 지정된 문화재의 구성을 보면 장검 2병, 옥로 1좌, 요대 1좌, 임진일기 8책, 서간첩 1책, 도배 2조, 임진장초 1책 등으로 이뤄졌다.⁸⁾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국보 제465호가 기록물과 기타 동산유물 등 두 가지 종류로 분할 지정됐다. 난중일기 7책과 서간첩·임진장초 각 1책은 국보 제465호의 기존 번호를 그대로 물려받았고,⁹⁾ 장검·옥로·요대·도배·구대 등 유물 일괄은 국보 제482호이라는 새 번호를 부여받았다.¹⁰⁾

3년이 지난 1962년 12월에는 난중일기 및 서간첩·임진장초가 속해있던 국보 제465호가 국보 제76호로 재차 변경되었다.¹¹⁾ 1959년 최초 지정 후 3년 동안 문화재 지정번호가 자주 변경된 것은 당시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1962년 이전의 문화재지정은 일제강점기인 1933년 8월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거한 것으로 1959년 문화재가 된 서간첩도 이 법령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1962년 1월 대한민국 정부에서 새롭게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부칙 3조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문화재는 1년 이내에 지정을 갱신해야만 했다. 그래서 서간첩도 12월 20일 새로운 법령에 맞춰 그 지정을 갱신한 것이다.¹²⁾ 1959년 8월 국보 제482호로 분할 지정되었던 충무공의

8) 단기 4292년 1월 23일(금요일) 관보 2225호 문교부고시 제74호.

9) 1959년 1월 국보 제465호로 최초 지정할 때는 난중일기가 8책이라고 고시하였으나, 8월 24일자 고시에서는 7책으로 변경하였다. 당시 관보에는 이를 “직전 고시의 ‘8책’이 ‘7책’의 오표였기에 정정한다”고 그 사유를 밝히고 있다.

10) 단기 4292년 8월 24일(월요일) 관보 2385호 문교부고시 제99호.

11) 1962년 12월 29일(토요일) 관보 3333호 문교부고시 제169호.

나머지 유물은 1963년 1월 보물 제326호로 변경 지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국보 제76호의 문화재 명칭에 변화가 있었는데, 2010년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사업에 의해 ‘이충무공난중일기부서간첩임진장초’가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로 변경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름이 확정되었다.¹³⁾ 2021년 11월에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명칭은 동일하고 지정번호만 삭제되었다.

한편 국보 서간첩은 그 정보의 빈약함과 동시에 부정확한 정보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일단 1959년 이래 문화재지정 고시에는 서간첩이 ‘1冊’ 단위로만 나올 뿐 서간첩에 담겨있는 편지 분량에 대한 세부 정보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서로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A-1. 이순신이 친척인 현건과 현덕승, 조카에게 보낸 편지와 큰아들 이희가 현건에게 보낸 편지 8편을 엮은 것이다. …… 현감역(=현건)에게 보낸 3통과 현지평 또는 현정량(=현덕승)에게 보낸 3편 등 모두 8편이 실려 있다.¹⁴⁾
2. 이순신이 주위에 보낸 편지 6편을 모아 첩으로 만든 것이다. / 이순신장군이 친척들에게 보낸 6편의 편지를 서첩으로 만든 것이다.¹⁵⁾
3. 「서간첩」은 이충무공이 보낸 편지 등 7편의 글과 이규대가 작성한 1편의 발문을 모아 첩으로 만든 것이다.¹⁶⁾

A-1은 현재 국보 서간첩을 보관·관리 중인 충남 아산 현충사의 누리

12) 「문화재보호법」(1962년 1월 10일 제정 및 시행) 부칙(법률 제961호).

제3조 (경과규정)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보물(國寶), 고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은 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가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되, 지정 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하고 가지정 문화재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3) 2010년 8월 25일(수요일) 관보 17328호 문화재청고시 제2010-89호.

14)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https://hcs.cha.go.kr>)(2022년 5월 10일 기준).

15)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1, 144쪽/242쪽.

16)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앞의 책, 84쪽.

집에 있는 서간첩 소개 글이다. 편지 8편이 실려 있다고 적고 있다. A-2는 현충사관리소에서 발행한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에 나오는 내용이다. 현충사 누리집과 달리 6편의 편지를 서첩으로 만든 것이라는 내용이다. A-3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나온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처리』 보고서 가운데 나오는 소개이다. 편지 7편과 발문 1편을 첩으로 만든 것이라고 기술하였다.

엄연히 실물이 존재하는 서간첩 하나를 두고 이렇듯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은 분명 혼란의 일은 아니다. 무엇이 서간첩 정보에 혼동을 준 것일까?

〈표 1〉 국보 서간첩 구성 순서와 발수신인 정보

순서	발신인 정보		수신인 정보	
1	叔	이순신	(성명 불상)	조카
2	罪人 李舜臣 疏	이순신	玄監役 座前	현씨
3	戚下 李舜臣 拜手	이순신	玄持平 靜案 回納	현씨
4	井邑宰 上候狀 / 戚下 李舜臣拜手	이순신	玄正郎宅 入納	현씨
5	戚下 舜臣 拜	이순신	玄正郎 旅榻 卽納	현씨
6	舜弟 拜	이순신	玄監役 旅榻 卽傳 / 尊兄	현씨
7	戚弟 舜臣 拜	이순신	玄監役宅 回納	현씨
8	罪人 李薈 疏上	장남	玄監役 座前	현씨
9	李奎大	후손	跋文	

〈표 1〉은 국보 서간첩의 구성 순서와 발신 및 수신자 정보를 간략히 정리한 표다. 구성을 보면 하나의 책으로 折帖된 서간첩에 총 9개의 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개의 글은 그 성격에 따라 8편의 편지와 1편의 발문으로 구분된다. 8편의 편지는 발신인에 따라 다시 이순신이 보낸 편지 7편과 이순신의 장남 이회가 보낸 편지 1편으로 나뉜다. 이순신이 보낸 친필 편지 7편은 수신인을 기준으로 영암의 연주 현씨 집안 현감역·현지평 등에게 보낸 6편과 성명 불상의 조카에게 보낸 편지 1편으로 분류된다. 서간첩 정보 혼동에는 복잡한 구성이 한몫 하였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 정보를 토대로 앞의 소개글을 복기해 보자. A-1 현충사 누리집의 소개글이 잘못된 정보라 말하긴 어렵다. 총 9개의 글 가운데 발문을 제외한 편지는 8편이기 때문이다. 발문에 대한 소개가 없다는 것만 빼면 편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정확하다. A-2의 이순신 장군이 친척들에게 보낸 6편의 편지라는 정보도 인척 관계라고 추정되는 연주 현씨 집안에 보낸 편지는 6편이기 때문에 역시 잘못됐다고 하기 어렵다. A-3는 이충무공 편지 7편과 발문 1편을 모았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7편은 이충무공의 친필 편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기존 소개 글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 않으나 향변할 수 있겠지만, 친절하지 않은 부정확한 정보라는 점은 분명하다. ‘충무공이 영암의 현씨 집안에 보낸 친필 편지 6편 등 총 8편의 편지와 이규대의 발문 1편을 모아 만든 서간첩’이라는 간단한 정보로도 얼마든지 혼동을 막을 수 있다. 향후 서간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최초 서간첩의 형태

국보 서간첩은 낱장 상태의 이순신 친필 편지를 후대에 두꺼운 종이에 붙여 하나의 책으로 帖裝하면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편지들이 처음 서간첩으로 제작된 시기를 알아보자.

B-1. 예전 우리 王考[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영암 군수로 나가셨을 때 우리 선조 충무공의 유목이 본군의 玄氏 집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서 내오기를 청하여 감상해보니 과연 선조의 필적이었다. [충무]공은 일찍이 그 집안의 선조 현지평과 더불어 도의지교를 맺었고 이에 더하여 인척간의 정도 있었기에 이렇게 주고 받은 서간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흠모하고 감탄해 추모하여 따로 模本을 만들어서 현씨에게 주고 사례하고, 진본은 집에 帖으로 보관하였다. 이것이 그 첩을 얻게 된 대략적인 연유이다. 절로 특별한 운수가 그 사이에 있던 것이니, 신명의 도움은 바로 우리 왕고의 독실한 효성이 이루어낸 것이다. 그것을 보관하고 지키는 책무를 누가 감히

- 감당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까닭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것이다.¹⁷⁾ ……
- 2.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한 가문이 보귀한 유물을 전하여 지키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그런데 私家에서 그것을 간직하는 것보다는 宗家の 사당에서 간직하는 것이 더 나으므로 이제 종가에 받들어 헌납하여 本孫이나 支孫으로 하여금 모두 함께 영원히 보도록 하여 선조의 뜻을 더욱 우러러 사모하고자 할 따름이다. 崇禎 다섯 번째 무자년(1888) 봄 3월 갑자(13)일에 소초 10세손 부호군 규대가 삼가 기록한다.¹⁸⁾

B는 서간첩의 가장 뒤에 실린 李奎大(1851~?)의 跋文 중 일부로,¹⁹⁾ 이순신이 보낸 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씨 문중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기록한 것이다.

B-1은 편지를 처음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이순신이 보낸 편지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한 사람은 이규대의 할아버지 李能權(1802~1857)이었다. 이능권은 1830년 1월부터 7월까지 잠시 영암군수로 내려왔는데,²⁰⁾ 이때 영암 연주 현씨 집안에 선조 충무공의 편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였다. 그래서 직접 현씨

17) “昔我王考 出宰靈巖時 聞 惟我先祖忠武公遺墨 在於本郡玄氏家 請進奉玩 果是先祖手澤也 公嘗與其先祖玄持平 爲道 / 義之交 加之以戚誼 有此往復筆翰也 於是欽感追慕 別爲模本 以授玄氏 而謝焉 其眞 / 本藏帖于家 盖其所以得之由 自有異數 存乎其間 神明所祐 乃我王考篤孝所致 其保護之責 孰敢與焉哉 故傳到于今日也”

18) “竊伏念我一門 傳守寶墨 莫京於此 與其藏之私家 不若藏諸 / 宗家之廟爲愈 故今乃奉納于宗家 俾本支子孫 咸與永瞻 以廣夫瞻仰先祖之意云爾. 崇禎五戊子春三月甲子小肖十世孫副護軍 奎大謹記”

19) 노승석(『난중일기』, 동아일보사, 2005)은 ‘이규대가 순신의 유물에 대해 쓴 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박종평(『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은 ‘서간첩 전래기’라고 하였다.

20) 이능권은 1802년 판서공 李惟秀의 장남으로 태어나 1825년 무과에 급제한 후 備邊 郎左承旨를 거쳐 1846년 右邊 捕盜大將을 역임하였다. 권수용의 『전남선생안』(심미안, 2017, 332쪽)에 의하면 1830년 정월~1833년 12월까지 영암군수로 재임한 것으로 나오는데, 다음 군수 이응겸의 재임 시기(1830년 7월~1833년 12월)와 많은 기간이 겹친다.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순조 2년(1829) 12월 4일자에 이능권을 영암군수로 삼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7월 10일자에 병을 이유로 그만두길 원하여 윤허하였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능권의 실제 재임기간은 1830년 정월~180년 7월까지로 보인다.

를 찾아가 이순신의 필적을 확인한 후 진본은 본인의 집으로 가져간 대신, 현씨 집에는 따로 模本을 만들어 남겨두고 사례하였다고 한다.²¹⁾

이어 B-2에서는 이순신의 친필 편지를 종가 사당, 즉 현충사가 소장하게 된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할아버지 이능권이 신명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얻은 편지를 그동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잘 보관하였지만, 보귀한 유물을 일개 사가에 묵히기보다는 종가 사당에 봉납하여 더 많은 후손이 선조의 뜻을 더 크게 사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B를 통해 이순신 편지가 오늘날까지 남겨진 내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만, 낱장의 편지가 서간첩의 형태로 제작된 것이 언제인지 정확한 기술은 없다. 서간첩에 대한 직접적인 紙質 조사 등을 통해 제작 년대를 판단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²²⁾ 결국 이규대의 글에 의지하여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B-1에 ‘진본은 집에 帖으로 보관하였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원문은 ‘其眞本藏帖于家’이다. 이능권이 이순신 친필 편지를 집으로 가져가 ‘첩’의 상태로 보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첩’이 책자 형태인지 배접지를 보강한 정도인지 명확치 않지만,²³⁾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영암에서 가져온 편지를 보관하기 위한 조치는 있었다는 점이다. 또 늦어도 이규대가 서간첩을 종가 사당에 넘기기 전에 이미 서간첩에 제작되었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규대의 글이 단순히 서간첩을 종가

21) 이순신 편지의 주인공은 영암군 연주 현씨 집안이다. 현재 연주 현씨 사직공과 종손인 玄三植씨와 면담 결과 현재 종가에는 이능권이 진본 편지를 가져가면서 현씨 집안에 대신 주고 갔다는 필사본이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

22) 지난 2013~2014년에 진행된 국보 제76호 난중일기·임진장초서간첩에 대한 보존처리 결과 보고서에서 서간첩의 배접지가 예전에 한 번 사용했던 종이를 재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앞의 책, 84~105쪽).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작업은 보존처리가 주목적이었던지라 배접지에 적힌 내용 분석 등 추가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나중이라도 배접지 내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확실한 서간첩 제작 연대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23) 박종평(앞의 책)은 ‘서첩으로 보관했다’고 번역한 반면, 노승석(앞의 책)은 ‘집에 간직하여 쌓아두었다’고 번역하였다. 오늘날 모습과 같은 책 형태의 서간첩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배접지를 보강하여 쌓아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당에 넘기기 전에 자신의 사가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한 목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서간첩 제작에 대한 발문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순신 종가 사당으로 넘어갈 때는 이순신의 편지 등과 함께 이규대의 발문이 포함된 형태의 서간첩이 봉납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규대가 넘긴 서간첩은 어떤 형태였을까? 현재 우리가 보는 국보 서간첩이 바로 그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에 이 질문이 의아할 수 있겠지만, 이규대가 종가에 넘긴 서간첩과 오늘날의 국보 서간첩은 서로 다른 부분이 발견된다. 이제 그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이능권에서 이규대로 전달되어 서간첩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어디에서도 영암 현씨 집안에서 받아온 편지 외에 다른 편지는 일절 등장하지 않는다. 이규대가 가지고 있는 편지는 오직 이순신과 장남이 현씨에게 보낸 편지 7편뿐이라는 것이다. 이규대 역시 영암군수로 재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과 영암 현씨 간의 편지에 얽힌 사정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²⁴⁾ 편지 입수 경위와 서간첩 제작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서간첩은 현씨 집안의 편지만으로 제작하는 게 이치에 맞다. 즉 처음 만든 서간첩에는 현씨 집안 관련 편지 7편과 발문 등 총 8편의 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정상이다.

문제는 현재 국보 서간첩 가장 앞에는 현씨와 관련 없는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 편지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

이규대의 서간첩 봉납 후 40여 년이 지난 1928년, 다행히도 초창기 서간첩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필름 자료가 남아 있다. 이 시기 일제는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해 조선의 名家·舊族 혹은 일반 민간이 소장

24) 『전남선생안』(권수용, 앞의 책, 334쪽.)에 의하면 이규대는 1876년~1877년 사이 영암군수에 재임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에는 고종 12년(1875) 7월 이규대를 영암군수로 임명한 기사가 나온다. 1877년 6월 진도군수로 발령 받아 영암을 떠났는데, 이 때 주민들이 만든 비석이 현재 영암군 덕진면 영보리 永保亭 앞에 있다. ‘行郡守李候奎大永世不忘碑’의 뒷면에는 ‘승정 후 5회 정축’(1877)이라고 새겨져 있어 영암군수 퇴임 시기와 일치한다.

하고 있던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舊慣·制度 調査事業’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순신 종가 소장 유물을 촬영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촬영 당시 이순신 종가에 방문했던 『조선사』의 임진왜란 부분 담당자였던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편수회 수사관은 “이순신 가문의 물건이 세상에 나왔는데, 단지 수에 있어서 풍부함을 더할 뿐 아니라, 질에 있어서도 모두 뛰어난 것들이 갖추어져서 놀라웠다”는 등의 감격스러운 소회를 남겼다. 그는 이때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같은 해 「忠武公李舜臣の遺寶-朝鮮役海戰史料の發見」라는 일종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²⁵⁾

이순신 서간첩 역시 이때 다른 유물들과 함께 촬영됐으며,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간첩은 표지를 포함해 총 15장의 흑백 사진으로 구성돼 있다. 서간첩의 소장자는 이순신 종가인 ‘충남 아산군 염치면 백암리 이종옥’이고, 서간첩에 대해서 “을축년 이순신이 현감역에게 보낸 서간과 무술년 이순신 장례 후 아들 회가 현씨 덕에 보낸 서간을 현씨가에서 모아 둔 서간첩”이라는 설명을 남겨두었다.²⁶⁾ 이순신이 현씨 집안에 보낸 편지와 아들 이회가 현씨 집안에 보낸 편지 등 오직 영암 현씨 집안과 관련된 것만 모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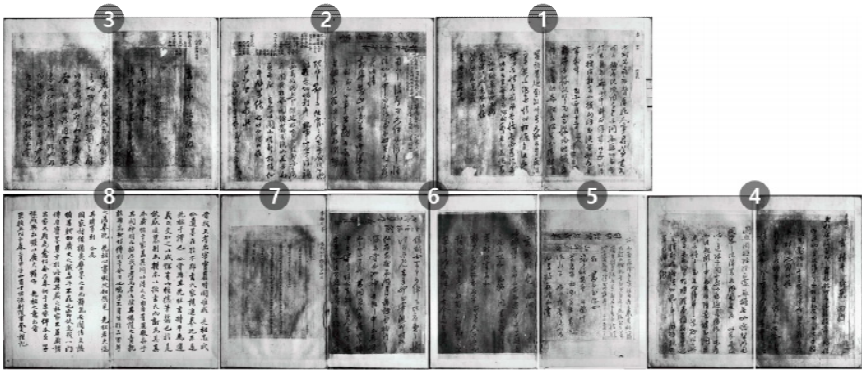
Ⅲ. 1928년 촬영본과 국보 서간첩 비교

25) 黑板博士紀念會編, 「朝鮮史の編修と朝鮮史料の蒐集-朝鮮總督府朝鮮史編修會の事業」, 『古文化の保存と研究: 黑板博士の業績を中心として』, 吉川弘文館, 1953;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68, 한일관계사학회, 2020, 153~157쪽 재인용.

2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사진유리필름자료 ‘李舜臣書簡帖’

1. 두 서간첩의 차이

여기에서는 서간첩의 초창기 모습을 전해주는 1928년 촬영본과 현재의 국보 서간첩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세밀히 살펴보려 한다.



〈그림 2〉 1928년 조선사편수회 촬영본 이순신 서간첩



〈그림 3〉 국보 이순신 서간첩

〈그림 2〉는 1928년에 촬영된 낱장 사진을 필름 번호 순서에 따라 서간첩 형태로 재구성해 본 것이다. 표지를 제외하고 총 14면에 8편의 글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은 2014년 보존처리를 끝내고 촬영한 최신 상태의 국보 서간첩 사진으로, 총 15면에 9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편하게 1928년 서간첩을 기준으로 같은 편지에 같은 번호를 매겨 보았다. 그 결과 두 서간첩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서간첩을 구성하는 편지 개수가 다르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편지의 배치 순서가 뒤섞였다는 것이다.

먼저 편지 개수의 차이다. 1928년 촬영 자료와 달리 현재 국보 서간첩에는 이순신이 조카에게 보냈다는 편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림 3>의 ‘[○]’편지가 그것이다. 사실 이 편지는 이능권이 현씨 집안으로부터 편지를 받아오기 훨씬 이전에 세상에 먼저 알려진 것이다. 일찌감치 정조 때 간행된 1795년본 『이충무공전서』에 실려 있던 편지다.²⁷⁾ 서간첩이 만들어진 후 새롭게 발견된 편지라 국보 서간첩에 추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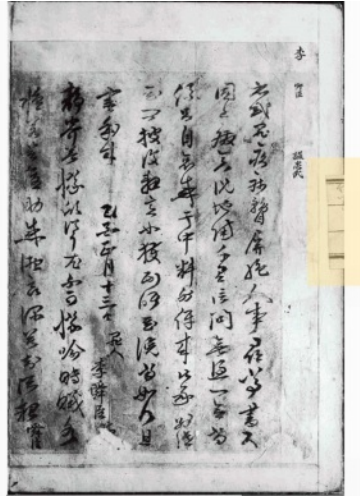
그렇다면 정조 때부터 알려져 있던 편지가 1928년 촬영본에는 왜 없는 것일까? ‘일제강점기’와 ‘조선사편수회’ 같은 것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한 의도적 누락을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조선사편수회가 서간첩 촬영 중 조카 편지를 누락해서 얻을 이익은 거의 없다.²⁸⁾ 당시 조선사편수회의 촬영 자체가 덕수 이씨

27) 『李忠武公全書』 卷之一 櫛著 與某姪書.

28) 당시 시행 중이던 구관 조사사업은 조선의 명문 종가 사이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었기에, 원활한 자료 수집이 힘들어진 조선사편수회는 이를 타개할 대책이 필요했던 때다. 당시 편수관이었던 나카무라는 “이순신 종손가를 방문하여, 지금껏 구관 조사사업을 통한 문헌 대출에 응하지 않았던 이순신 자필의 亂中日記를 비롯한 이순신 관련 중요 문헌을 촬영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남겼는데, 이순신 종가 역시 구관 조사사업에 자료를 선뜻 빌려주지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귀중한 자료를 대여했다가 혹시라도 압수나 분실 등을 이유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오랜 설득 끝에 이순신 종가는 유물 대여 대신 현장 촬영만을 허락하였는데, 편수회는 이마저도 구관 조사사업 미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이순신의 유물을 조사하면서 종가에서 제공한 유물을 절대로 소홀히 다루지 않고, 빠뜨리거나 왜곡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하나의 사례로 만든 것이다. 또한, 1795년 『이충무공전서』에 수록된 『난중일기』에서 생략된 것들을 수없이 찾아내면서 후손들의 자료 제출이 결국 선조의 훌륭한 부분을 더욱 잘 알려지게 한다는 효과를

종가가 가지고 있는 난중일기 7책·임진장초 1책·서간첩 1책·선무공신교서 등과 주요 동산유물을 일괄 촬영하기 위함이었으니,²⁹⁾ 현씨 집안과 관련된 편지만 골라서 촬영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조선사편수회 사진 촬영팀이 조카에게 보낸 편지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기보다 애초에 ① 편지가 서간첩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옳다.

1928년 당시 서간첩에 조카에서 보낸 편지가 없었을 가능성은 당시 촬영 필름에서 더욱 확실해진다. 앞서 <그림 2>의 1928년 촬영 이순신 서간첩을 보면 1585년 1월 13일 父親喪 중이던 이순신이 玄監役에게 보낸 ①번 편지가 맨 앞장에 나와 있다. 이 필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림 4>와 같은데,³⁰⁾ 편지 우편 중간 부분에 서지정보나 관리 정보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출지류의 종이가 보인다. 이규대가 서간첩을 만들 때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종가에서 관리를 위해 붙인 것이 아



<그림 4> 1928년 촬영본 ①번 편지

닐까 싶다.³¹⁾ 만약 <그림 3>의 국보 서간첩처럼 편지 ①의 우측에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이어져 있었다면 건출지가 편지와 편지 중간에 위치해 편지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긴 어려웠을 것이다. 즉 이 종이는 애초에 ①번 편지가 서간첩의 첫 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불러일으켰다.(김준배, 앞의 논문, 155~175쪽)

29) 이때 촬영한 자료를 토대로 1935년 『朝鮮史料叢刊：亂中日記草·壬辰狀草』 영인본을 발행하였는데, 다만 이때 서간첩은 제외됐다.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진유리필름자료. 등록번호 : GF 1880 [15-133-08]

31) 이순신 종가가 소장 중인 임진장초 첫 번째 사진에서도 동일한 건출지가 확인된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사진유리필름자료. 등록번호 : GF 4630 [34-285-01]).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정리하자면 19세기 초 이능권 혹은 1888년 무렵 이규대가 처음 만들어 이순신 종가 사당에 전달한 서간첩은 1928년 촬영 당시까지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서간첩에 현씨 집안 관련 편지만 장첩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다. 애초부터 서간첩은 ‘이순신의 친필편지 모음집’이 아니라 ‘영암의 연주 현씨 집안이 보관하던 이순신과 그 아들에게 받은 편지 모음집’이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편지 배치 순서를 살펴보자.

<표 2> 1928년본 서간첩과 국보 서간첩의 수록 편지 순서

발신인	수신인	일시	1928년 순서	국보 순서
이순신	성명 불상 조카	(1598년) ³²⁾ 8월 6일	-	㉔
이순신	현감역	1585년 정월 13일	1	1
이순신	현정랑	1589년 9월 19일	2	3
이순신	현정랑	1589년 12월~1590년 6월 사이	3	4
이순신	현지평	1593년 7월 16일	4	2
이순신	현감역	날짜 미상	5	5
이순신	현감역	1598년 2월 19일	6	6
장남 이회	현감역	1598년 12월 13일	7	7
후손 이규대	발문	1888년 3월 13일	8	8

<표 2>는 두 서간첩 사이의 차이점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1928년 필름의 순서를 기준으로 국보 서간첩의 편지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1928년 서간첩은 편지를 주고받은 일시를 기준으로 시대 순으로 장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현재 남아 있는 국보 서간첩의 경우 현씨에게 보낸 편지 중 총 세 편의 배치가 시대 순에 어긋나 있다.

32) 편지에는 별도의 연도 표기가 없으나 이순신이 남쪽에 머물고 있다는 점과 명나라 장수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1598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박종평 역, 앞의 책, 1086쪽)

2. 『이충무공전서』 속집의 간행

1928년 사진의 서간첩이 오늘날의 국보 서간첩 형태로 변하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충무공의 글을 모아놓은 『李忠武公全書』에 대해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전서는 정조 19년(1795) 왕명에 의해 이순신의 遺稿와 관계 문건을 망라하여 총 14권 8책으로 처음 간행됐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8년 최남선이 구두점을 찍고 상하 2권으로 활자 영인한 『이충무공전서』가 신문관에서 출판되었으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거나 하는 등의 특이 사항은 없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1934년본 『이충무공전서』(이후 속집)이다. 속집의 가장 큰 특징은 1795년본에 빠져 있던 자료를 새롭게 모아 補遺 1·2권을 추가해 총 16권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유 1권(권15)에는 정조 때 채록되지 않은 자료를 정리하였는데, 현씨와의 편지를 비롯한 여러 편지와 시, 잡저, 장계 등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다.³³⁾ 보유 2권(권16)에는 정조 이후 전국에 세워진 이순신 관련 기념물을 정리하였다.

속집의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이순신의 후손으로 고종 때 무관 등을 역임했던 李敏復(1862~1944년)이다. 그는 1795년본 간행 때 실리지 않은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며 속편 출간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바로 『忠武公家乘 續編』이다. 이 책의 서문 작성 연도가 1922년이라는 점에서 1934년본 속집 출간을 위한 자료 수집이 최소한 십여 년도 더 오래전부터 준비 중이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속집의 출판을 진행한 사람은 徐長錫(1884~1944)이다. 1930년 출간을 시도했다가 일제의 출판물 검열에 걸려 출간이 늦어졌다.³⁴⁾ 당시 일제는 ‘倭僭’과 ‘倭賊’의 삭제를 요구하며 출판 불허를 내렸고, 이 때문에 실제 속집의 내용에 ‘추’와 ‘적’이 삭제되어 있다.³⁵⁾

33) 『李忠武公全書』(1934) 卷15 補遺.

34) 『朝鮮出版警察月報』第22號 「出版警察概況-不許可 差押 및 削除 出版物 目錄(6월분)」; 『朝鮮出版警察月報』第22號 「出版警察概況-不許可 差押 및 削除 出版物 記事要旨-『李忠武公全書』」

유목이 함께 실려 있다. 서찰 등의 목적을 그대로 모방해서 옮겨 쓰는 것을 臨寫라 하는데, 보유 1권의 뒷부분에 이순신의 유목을 별도로 임사해서 실어 두었다.³⁷⁾ 이순신의 편지 원본을 촬영해 인쇄하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 별도의 필사 전문가를 동원하여 임사본을 남긴 것은 최대한 이순신 친필에 가까운 필체를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런데 유목 부분을 보면 활자 부분과 달리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앞에 나오고 이순신이 영암 현씨에게 보낸 편지 6편의 임사본이 뒤이어 나온다. <그림 5>의 임사본 첫 페이지가 바로 조카에게 보낸 편지이다.

1795년에 이미 소개됐던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소개하는 보유 1권의 유목 부분에 끼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조카 편지의 본문은 이미 권1에 실려 있기 때문에 보유 1권 본문에 중복해 신지 않았다. 하지만 임사본 유목은 약간 사정이 달랐다. 조카에게 보낸 편지 역시 유목의 형태로는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 자료를 소개하는 보유 1권에 넣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IV. 임사본과 국보 서간첩 비교

1. 다양한 임사본의 존재

속집에 실린 편지의 임사는 무엇을 보고 만든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속집 외에도 다양한 임사본의 존재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겠다. 더 많은 임사본이 존재할 수 있지만, 현재 확인한 임사본 네 가지를 통해 임사본의 구조 특성을 알아보려 한다. 참고한 임사는 첫 번째 1934년본 속집 임사본이고, 두 번째는 속집보다 1년 앞서 간행된 『偉人遺蹟』³⁸⁾에 실린 임사본이다. 세 번째는 1960년 이은상의 국역본에 소개된 임사본이고,³⁹⁾ 마지막 네 번째는 영암 연주 현씨 종가에서 현재 소장하고 있는

37) 1934년본 『이충무공전서』의 유사록에는 공주 사람 최재창이 ‘書寫’를 담당하였다고 나온다.

38) 『위인유적』(조선총독부고서부분류표 古朝57)은 1933년 김규용이 발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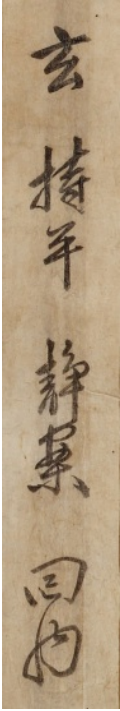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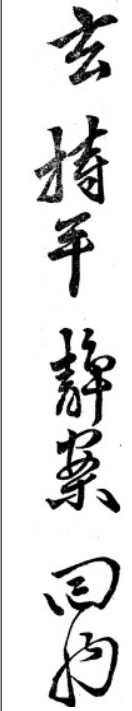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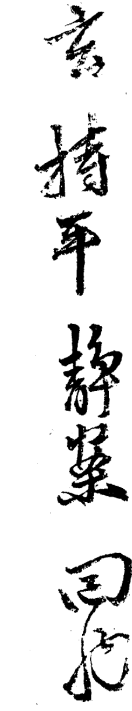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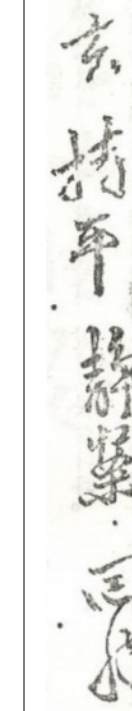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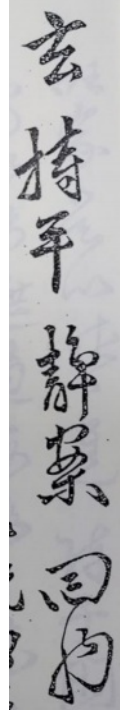
연도미상의 임사(복사)본이다.⁴⁰⁾

국보 서간첩	『위인유적』 (1933)	『이충무공전서』 속집(1934)	『(국역주해) 이충무공전서』 (1960)	영암 연주현씨 종가 보관본
				

〈그림 6〉 진본과 임사본 4종의 서체 비교
1585년 정월 13일 이순신이 현감역에게 보낸 편지 中

39) 이은상 역, 『(國譯註解)李忠武公全書』 下, 충무공기념사업회, 1960.

40) 연주 현씨 사직공과 종손 현삼식씨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종가에 있는 것은 이능권이 주고 간 모본이 아니라 현삼식씨가 직접 현충사에 가서 복사해서 받아온 임사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복사한 임사본의 원본은 현충사에 있다고 봐야 한다.

국보 서간첩	『위인유적』 (1933)	『이충무공전서』 속집(1934)	『(국역주해) 이충무공전서』 (1960)	영암 연주현씨 종가 보관본
				

〈그림 7〉 진본과 임사본 4종의 서체 비교
1593년 7월 16일 이순신이 현지평에게 보낸 편지 中

〈그림 6〉과 〈그림 7〉은 친필편지 진본과 임사본 4종 등 5가지의 서체를 비교한 것이다. 얼핏 보면 같은 글씨체로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임사본 4종 역시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로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인유적』 임사의 경우에는 ‘1598년[戊戌] 2월 19일, 현건에게 보낸 편지’의 중간 부분에

서 8줄 100여 글자가 통째로 빠져 있는데, 이는 임사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로 추정된다. 1년 차이로 편찬된 『위인유적』과 속집에는 이순신 친필편지를 제외한 아들의 편지와 이규대의 발문은 담겨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편지의 배치 순서도 두 개의 임사본은 동일하다.

반면 이은상의 국역본에 있는 임사본은 이순신이 현씨 일가에게 보낸 편지만 수록되어 있다. 조카에게 보낸 편지와 아들 회가 현씨에 보낸 편지, 이규대의 발문 등은 모두 빠져 있다. 이같은 구성은 영암의 현씨 종가에서 보관 중인 복사본도 마찬가지이다. 역시 이순신이 현씨에게 보낸 친필편지로만 이뤄졌다. 임사본 사이의 차이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 <표 3>이다.

<표 3> 서간첩 진본 및 임사본 구조

全書 (1795) 본문	국보 서간첩	1928 년 유리 필름	위인 유적 (1933) 임사	속집 遺墨 (1934) 임사	속집書 (1934) 본문	이은상 국역본 (1960) 임사	영암 소장 임사 (복사)	발신인	수신인	연도
(권1)	있음	-	있음	있음	(권1)	-	-	삼촌 (이순신)	성명 불상 조카	연도 미상. 8월 6일
-	1	1	1	1	1	1	1	이순신	玄監役	1585년 정월 13일
-	3	2	2	2	4	4	4	이순신	玄正郎	1589년 9월 19일
-	4	3	3	3	5	5	5	이순신	玄正郎	1589년 12월~1590년 6월
-	2	4	4	4	6	6	6	이순신	玄持平	1593년 7월 16일
-	5	5	5	5	2	2	2	이순신	玄監役	날짜 미상
-	6	6	6	6	3	3	3	이순신	玄監役	1598년 2월 19일
-	7	7	-	-	-	-	-	장남 이회	玄監役	1598년 12월 13일
-	8	8	-	-	-	-	-	후손 이규대	跋文	1888년 3월 13일

<표 3>을 보면 임사본 4종이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33년과 1934년의 임사본은 1928년 유리 필름의 편지 배치 순서와 동일하다. 이 두 임사본은 초창기 서간첩을 바탕으로 임사 및 배치한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유리필름에서는 빠져 있던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임사본에 추가된 점과, 필름에 있는 아들 이회의 편지와 이규대 발문이 임사본에는 빠졌다는 점이 차이라고 하겠다.

반면 이은상본과 영암소장본은 그 구성과 순서가 1934년본 속집의 본문 활자 편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은상 국역본의 임사본 순서가 국보 서간첩이나 1930년대 임사본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책의 편집 방식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은상 국역본은 속집을 모본으로 삼아 제작한 것인데, 속집은 <그림 5>의 목차에서 볼 수 있듯이 이순신의 편지를 발송 연도가 아닌 수신인 기준, 즉 玄監役·玄正郎·玄持平 등의 순서로 분류하였다. 이은상의 국역본 편집 특성이 원문-국역-임사본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본문 순서에 맞춰 임사본이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 현충사에서 복사해왔다는 영암 종가 소장본 역시 이은상의 국역본 임사본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국보 서간첩의 변형

1928년 당시 현씨 집안에서 받은 편지로만 구성된 서간첩이 이후 언제부터인가 이순신이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서간첩의 맨 앞장에 추가되었으며, 또 중간중간 편지의 순서까지 뒤섞이면서 오늘날의 국보 서간첩 형태가 되었다. 처음 만들 때 시대 순으로 반듯했던 서간첩이 나중에 흐트러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간첩은 여러 겹의 배접지를 깔고 그 위에 편지를 붙인 후 보강작업을 한 책자이다. 이렇게 첩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형태가 쉽게 변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에 의해 변형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누군가에 의한 의도적 조작을 의심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럼 서간첩의 변화 과정을 쫓아가면서 이 의심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앞서 현씨 집안의 편지와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던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서로 엮이게 된 첫 번째 지점이 바로 1933~1934년 무렵 제작된 임사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찬 준비 기간을 생각한다면 1928년~1933년 사이에 이질적인 두 부류의 편지가 조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편지의 어색한 조합이 가능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1930년대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충무공 유적보존 운동’⁴¹⁾이다. 이순신의 13대 종손이었던 이종옥은 일제의 탄압과 옥고, 항일운동 등으로 인해 살림살이가 힘들어지자 사당 유지비·제향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토(位土)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은행 빚에 이자까지 계속 더해지면서 1931년 이 땅이 경매로 처분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동아일보』는 5월 14일 “민족적 수치”라는 사설을 게재하면서 이충무공 유적보존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전 민족적 운동을 촉구하였다.⁴²⁾ 결국 사회적 이슈화에 성공하면서 며칠 만에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하였고, 윤치호·송진우·정인보 등 각계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충무공유적 보존회 창립과 이충무공 유적보존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⁴³⁾ 그 결과 보존회가 창립되었고, 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으로 인해 1868년 철폐됐던 현충사가 1932년 6월 중건되기에 이르렀다.⁴⁴⁾

41) 이는 당시 사용하던 용어는 아니다. 1930년대 초 이충무공의 유적 보존과 현충사 중건, 보존회 설립 등 일련의 움직임을 ‘이충무공 유적보존 운동’이라 부른 것은 김도형(「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이순신연구논총』1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1)의 명명법을 참조한 것이다.

42) 『동아일보』 「李忠武公 廟閣이 頽落」, 1930년 9월 20일; 『동아일보』 「二千圓빚에 競賣當하는 李忠武公의 墓所位土」, 1931년 5월 13일; 『동아일보』 「民族的羞耻」, 1931년 5월 14일. 등등

43) 『동아일보』 「李忠武公墓所問題와 社會的反響漸大」, 1931년 5월 17일; 『동아일보』 「忠武公遺蹟 保存會創立」, 1931년 5월 25일; 『동아일보』 「各方面的 有志會合 遺跡保存會創立」, 1931년 5월 25일.

44) 홍순승, 「현충사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1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8, 15쪽.

이때 이순신의 유물에도 변화가 생겼다. 1928년 필름 촬영 당시만 해도 이순신의 유물은 이종옥의 집에서 보관하였는데, 현충사 중건 과정에서 모금한 돈으로 강철제 금고를 설치하고 각종 유물을 현충사에서 영구 보관하게 된 것이다.⁴⁵⁾ 현씨에게 보낸 편지가 강철 금고에 들어간 것은 1948년 현충사 탐방 기사에서도 확인된다.⁴⁶⁾ 1932년 현충사 금고 속에 서간첩을 보관하기 시작한 이후 1959년 1월 최초 국보 제465호로 지정될 때까지 특별히 서간첩의 구성을 변형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그럴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간첩의 구성 변화는 1928년부터 1932년 사이의 어느 시점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현충사에 유물을 이전·보관하면서 많은 유물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며, 조카에게 보낸 친필 편지를 서간첩 맨 앞 빈 공간에 배접해 붙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국보 서간첩이 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편지 순서의 변화였다. 편지가 뒤죽박죽이 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직접 사료는 찾을 수 없지만, 1967년 발생한 현충사 문화재 도난 사건 정황 속에서 그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⁴⁷⁾

1967년 12월 30일, 연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를 틈타 절도범들이 현충사 유물관 진열장에 보관 중이던 국보 제76호 난중일기·임진장초·서간첩

45) “충무공의 유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공이 평생 진중에서 쓰던 검과 금대, 자필로 쓰신 일기며 칙지 등인데, 이런 보물들은 지금까지 공의사손되는 이종옥씨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현충사가 중건되고 또 그 안 강철제의 금고를 설치하여 이런 유물들을 모두 그 금고 속에서 영원히 보관하게 되었다.”(『동아일보』 「公의 遺物은 永久히 保存」, 1932년 5월 29일)

46) “현충사 중앙에는 공의 ‘영전’이 안치되어 있고, 왼편 금고 속에 공의 유품이 있다. 공이 전후 칠년에 금한 옥포 당포 한산 부산 해전의 임진왜란에 왜구를 무찌르던 두 자리의 장검도 있다. … 정읍 현씨에게 보낸 공의 편지와 항색표지의 임진일기 … 임진장초 등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어 어느 하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개를 새롭게 하지 않음이 없다.”(『경향신문』 「李忠武公의 遺跡을 찾고 (下)」, 1948년 12월 15일.)

47) 『조선일보』 「國寶 76號 忠武公 「亂中日記」 도난」, 1968년 1월 1일; 『동아일보』 「亂中日記 등 도난」, 1968년 1월 4일; 『경향신문』 「國寶忠武公亂中日記 도난」, 1968년 1월 4일. 등등

등을 모두 훑쳐간 사건이 발생하였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 특별담화와 전 국가적인 충무공 유물 찾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결국 10여일 만에 대부분의 유물을 안전하게 회수하였다. 그런데 회수 물품을 이은상의 영인본과 대조하던 중 서간첩 일부가 빠져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범인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공범 가운데 한 명이 몰래 빼돌려 집에 보관 중이던 편지를 뒤늦게 찾게 된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총 15장⁴⁸⁾ 중 6장(3통)이 서간첩에서 탈락되어 있었다.⁴⁹⁾

3통의 편지를 뒤늦게 회수한 후 이 편지들이 어떻게 다시 서간첩에 들어갔는지, 그로 인하여 서간첩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현재 국보 서간첩의 편지 배치 가운데 딱 6장(3통)의 순서가 섞여 있다는 사실은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이순신의 친필 편지 등장부터 서간첩 제작 과정, 그리고 현재 국보 서간첩과 초기 서간첩이 서로 다른 형태를 하게 된 이유 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간첩 원형 찾기에 관한 두 가지 제언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48) 『동아일보』(1968년 2월 7일)에서는 “총 16장 중 6장(3통)”이라고 하였는데, 16장은 서간첩의 총 면수일 뿐, 실제 편지 및 발문은 15면이 맞다.

49) “아산 현충사에서 도난당했던 이충무공의 『난중일기』 중 서간첩일부가 공범 강찬순의 집에서 뒤늦게 발견돼 5일 덕수궁미술관에 옮겨졌음이 6일 알려졌다. 뒤늦게 찾게 된 부분은 서간첩 15장 중 6장(3통)으로 문화재관리국에서 지난 1월 『난중일기』를 마산에서 되찾은 즉시, 10년전 부산대학에서 만든 영인본(이은상씨 소장)과 대조하다가 결실됐음을 비로소 알고 수사기관에 의뢰, 대전지검천안지청 조정제 검사의 힘을 빌려 회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서간첩은, 강이 다른 공범들도 모르게 빼어서 숨겨두고 있었던 것을 강이 구속되자 그의 부인이 후환이 두려워 불태워버리려 했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亂中日記 큰일날뻔, 書簡帖, 犯人집서 燒却직전回收」, 1968년 2월 7일.)

서간첩은 애초에 이순신과 장남이 영암 현씨 집안에 보낸 편지 모음이었다. 따라서 서간첩에서 조카에게 보낸 편지를 제외하고 1928년 촬영본과 마찬가지로 현씨 집안과 관련된 편지로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최초 문화재 지정 당시 조카에게 보낸 편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빼는 것이 곤란하다면, 1928년 필름을 기준으로 시간순에 맞게 편지를 배치하는 것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보 서간첩에 변화가 생겼다고 추정되는 시기들이 이미 오래 전이라 당시 당사자들의 기록과 증언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행여나 논리적 비약이나 지나친 추측에 의지한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아울러 이 글은 서간첩의 외적인 부분, 즉 형태의 변형에 집중하였다. 그러한 탓에 내적인 부분, 즉 편지를 받았다는 현씨 집안 사람들에 대한 치밀한 고증이나 편지 내용 이야기를 풀어가지 못한 한계가 명확한 글이기도 하다. 아무쪼록 앞으로 국보 이순신 서간첩의 내적 부분에 관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촉발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이 논문은 2022년 5월 2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偉人遺蹟』(1933) / 『李忠武公全書』(1795) / 『李忠武公全書』(1934) 속집
『承政院日記』 / 『日省錄』
『경향신문』 / 『남도일보』 / 『노컷뉴스』 / 『대전일보』 / 『동아일보』 / 『서울신문』 /
『연합뉴스』 / 『조선일보』.

국가기록원(<https://theme.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다음백과(<https://100.daum.net/>)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s://www.heritage.go.kr/>)
문화재청 현충사 관리소(<https://hcs.cha.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김도형, 「1930년대 ‘이충무공유적보존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 『이순신연구논총』
1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1.
노기욱, 「전라남도 이순신 문화자원 활용 방안 : 국보 76호 이순신 서간첩을 중심
으로」, 『이순신연구논총』26,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6.
임원빈, 「약무호남 시무국가를 통해 본 이순신의 수군 전략」, 『이순신연구논총』2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7.
조신희, 「약무호남시무국가 계획의 의미와 미래지향적 과제」, 『이순신연구논총』
2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7.
홍순승, 「현충사의 건립과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10, 순천향대
학교 이순신연구소,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국보 제76호 이순신 난중일기 및 서간첩
임진장초 보존처리』,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15.
권수용 편역, 『전남선생안』, 심미안, 2017.

- 김준배, 「문화통치기 조선사편수회 소속 일본인 연구자의 이순신 서술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의 「충무공 이순신의 유보(忠武公李舜臣の遺寶)」(1928)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68, 한일관계사학회, 2020.
- 노승석, 『난중일기』, 동아일보사, 2005.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충무공 이순신과 임진왜란』,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2011.
- 박종평, 『난중일기』, 글항아리, 2018.
- 이은상 역, 『(國譯註解)李忠武公全書』 上下, 충무공기념사업회, 1960.
- 덕수이씨세보간행위원회, 『增補 第九刊 德水李氏世譜』, 뿌리문화사,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National Treasure ‘Collection of Letters by Yi Sun-sin’

Cho, Sang-hyun

In the early 1830s, Lee Neung-kwon received Yi Sun-sin's handwritten letter from the Yeonju Hyeon Clan. His descendant Lee Kyu-dae dedicated the letter to the shrine of the Lee clan. At this time, the letter was made in the form of a booklet, and the epilogue of Lee Kyu-dae was attached at the end.

The glass film of Yi Sun-sin's letter taken by the Chosun Historical Association in 1928 remains. It consists of a letter to Hyeon Clan and the epilogue of Lee Kyu-dae, arranged in chronological order. Judging by the fact that there is a 'letter to nephew' at the front of the 'National Treasure - Collection of Letters by Yi Sun-sin', it seems that it was newly added to the "Letters Collection" in the 1930s.

Currently, the 'National Treasure - Collection of Letters' left to us is a mixture of letter orders compared to '1928 Film' and 'Lee Eun-sang's Printed Book' published in the 1960s. This was also an excuse for suspicion that someone might have intentionally manipulated it. However, the reason why Lee Eun-sang's arrangement of the letter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ollection of Letters is simply because the letters were arranged in the order of recipients, and no suspicious points were fou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during the theft of National Treasure No. 76, which took place in December 1967, the letter collection was separated into some pages by thieves. It is

presumed that the current 'National Treasure - Collection of Letters' is different in order from the initial letter book due to the theft.

The present 'Collection of Letters by Yi Sun-sin' deviates from the character of a collection of letters between the original form 'Yi Sun-sin-Hyeon Clan'. And the order of letters is also mixed up. It is necessary to find the original form.

keywords :

Collection of Letters by Yi Sun-sin, National Treasure No. 76,
『Collection of Yi Chungmugong』, 『Collection of Yi Chungmugong』
sequel, Yi Sun-sin, Yeonju Hyeon Clan, Lee gyu-dae

